

특별기고 - 21세기 생약산업의 경쟁력을 준비하자!

# 서유럽에서 인기있는 생약재 (I)

## 에키나세아 아름다운 자색꽃 정원수로도 적합 카모밀레 강한향 차 또는 위장약으로 널리이용

새로운 신약물질의 개발은 그것의 약효보다도 어찌면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여 보장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구를 행하여 인체에 해가 없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신약1호가 탄생했지만, 그동안 투자한 노력이나 자본은 엄청난, 그만큼 신약을 개발하는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한다. 문헌이나 허가를 득한 신약물질의 수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특히 까다롭다. 전세계적으로 13,000여종의 식물이 약리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였지만, 실제로 미국의 FDA나 독일의 연방보건청(Bundesgesundheitsamt)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식물이나 약품 수는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에서 한방에 이용되고 있는 생약재들도 이들 국가에스는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 한방이나 약용식물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들 선진국가에서 인기 있는 약용 식물의 개발현황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고 유통되고 있는 약용식물은 은행, 에키나세아(Echinacea), 카모밀레(Chamomile), 흰꽃여름국화(Feverfew), 산사나무 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 은행나무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약용식물로 독일에서 만들어져 GBE 라는 이름으로 유럽전역에 매우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 24%, 티어펜 성분 6%로 구성된 이 추출물을 1988년에는 540만명의 독일인이 이용했을 뿐만아니라 노인성 치매에 특효가 있음이 밝혀져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 에키나세아는

예로부터 인디안들이 피를 맑게 하는 정혈제로 널리 이용해 온 식물이다. 이 식물 뿌리의 알칼추출물은 병원성 미생물을 퇴치하는 항균물질로 이용되었지만, 이후 황 함유 약물과 활성이 높은 다른 약물이 출현함에 따라 1950년부터는 이 분야에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 독일은 미국에서 유사식물을 도입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다. 이 추출물은 항균작용 외에도 체내에서 면역증강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져 이용성이 증대되었다. 이들은 로손, 크림등의 형태로 소염제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감기약으로 경구복용되고 있다. 이들의 인체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가 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차, 캡슐 등 다양한 형태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 식물은 종자로 번식하며, 아름다운 자색꽃이 피어 정원에 식재하는 것도 좋다. 재배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발아율이 10~40% 정도로 낮다. 발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휴면타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데 보고에 의하면 85% 이상 발



에키나세아

아율을 높였다고 한다. 이 식물은 뿌리나 꽃이 이용되며, 꽃을 이용할 경우 적절한 수확시기를 선택해야 한다. 적절한 채취시기는 개화기가 좋는데 1주에 두 번 이상 수확한다. 인터넷 상에 말리지 않은 뿌리와 말린 뿌리 추출물을 4:1로 혼합한 것을 캡슐화하여 시판중에 있다. Herbvana사에서는 30개의 soft gel 캡슐(400mg 정도)이 5월에 판매하고 있다.

### 카모밀레는

국화과에 속하는 두해살이 식물로 가지를 많이 치며, 강한 향기가 있다. 이 식물을 차 또는 위장약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미국과 유럽에서의 이용 분야는 매우 다르다. 유럽에서는 주로 소염제, 항균제, 경련방지, 진정제 등의 내외상에 모두 이용된다. 독일의 Commition E는 진정작용을 제외하고 모든 약리 효과를 인정했다. 이 식물에는 소염작용, 진정작용을 하



카모밀레

는 푸른색 휘발성 오일성분이 0.5% 정도 함유되어 있다. 이 식물의 부작용은 약간의 알레르기반응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차로 복용할 때는 1일 1밀리미터 정도로 복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

이 식물은 귀화하여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저자는 알고 있는데, 이 식물 역시 국화과 식물이기 때문에 재배상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 이 식물을 주로 정유와 차로 판매되고 있다.

English Chamomile사는 5ml 정유 1병에 13달러, 125ml 1병에 155달러에 시판하고 있으며, 차로는 약용, 남성차, 여성차, 진통차 등의 이름으로 세분하여 16팩이 든 1박스에 4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생물자원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와 병행하여 생물자원과 기술의 지적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즉 자원을 가진 자원부국과 그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이 앞선 기술 선진국간의 지적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 생약의 경우에도 우리고유의 생약종은 보호하고, 외국에서 약효가 인정된 생약종에 대해서는 빨리 도입하여 귀화하여 생물종의 보존 뿐 아니라 이로부터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최명석(산림청 임업연구원)

[약력]  
1963년생  
경북대학교 농학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수연구원  
현 임업연구원 생물공학과 근무

## 신종 '선비면지버섯' DMZ서 세계 첫 발견

비무장지대 동부산악지역에서 갖테두리가 14개 이상으로 갈라진 '선비면지버섯'이 세계 처음으로 발견됐다. 왜솨다리(에텔바이스)의 국내 최대규모 군락지도 찾았다.

산림청은 산하 임업연구원과 외부 전문가 등 45명이 지난달 19~23일 강원도 북동부지역 비무장지대의 희귀동식물의 서식실태를 현장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선비면지버섯은 보통 면지버섯이 갖테두리가 6~10개인데 비해 4~8개 이상 많은 것으로 한국의 이미지에 맞게 명명하고 신종 후보종으로 국내 버섯학회에 등록한 뒤 세계 버섯학회에 등록할 예정이다.

또 향로봉 일대에서는 약 800㎡에 이르는 국내 최대규모의 왜솨다리 군락지를 발견했다. 왜솨다리는 설악산과 정봉산 소백산 등에 소규모로 자라는 고산 식물이다.



은행나무